

묘 법 연 화 경 妙法蓮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

觀世音菩薩普門品

염할지라 염할지라 의심말지라
거룩하신 그 성인 관세음보살
괴로움과 번뇌와 죽을 액난에
중생들 의지하고 믿을 바로세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뵈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

觀世音菩薩普門品

그때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쪽 어깨에 옷을 벗어 메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으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세존(世尊)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 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名號)를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觀)하고는, 모두 고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남자야,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威神力)
때문이다.

혹은 큰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
면 곧 얇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혹은 백천만 억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
노·산호·호박·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
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탄 배가 나
찰들의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라
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
들은 모두 다 나찰의 난(難)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
니,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흥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
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저들이 잡은 흥기는 곧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혹은 삼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나찰 등의 악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 일컫는 것을 들으면, 그 모든 악귀들이 능히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이 설사 죄가 있거나 없거나, 큰 칼을 씌우고 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이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된다.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흥기를 가진 원수와 도적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약 그 명호를 일컬으면 도적들의 난(難)을 벗어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일제히 소리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그 이름을 일컬음으로써, 곧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마하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거룩하느니라.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
살을 염(念)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에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또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을 염하고 공경
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바가 많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항상 마
음에 염해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남아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지닌 남아를 낳을
것이며, 여아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한 상호를 갖춘

여아를 낳으리니, 그는 숙세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福)이 헛되지 않으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육십이억 항하사 보살의 명호를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침구·의약으로 공양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선여인이 얻을 바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가 말씀드렸다.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니고 한 때라도 예배하고 공경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아서 차이가 없으니,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 지니면 이와
같이 무량무변한 복덕을 얻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娑婆
世界)에서 노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
며, 방편력(方便力)은 또한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 중에 마땅히 부처의 몸
으로 제도할 자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
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성문(聲聞)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범왕(梵王)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범왕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제석(帝釋)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제석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자재천(自在天)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대자재천(大自在天)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대장군(大將軍)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비사문(毗沙門)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소왕(小王)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소왕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장자(長者)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장자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거사(居士)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거사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재관(宰官)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재관의 몸으로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바라문(婆羅門)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으로 제
도할 자는, 곧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
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장자·거사·재관·바라문 부인의 몸으로 제
도할 자는, 곧 장자·거사·재관·바라문 부인의 몸
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동남(童男)·동녀(童女)의 몸으로 제도할 자
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천(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
나라·마후라가 등 인비인(人非人)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이들 모두의 몸을 나투어 설법하며,
마땅히 집금강신(執金剛神)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곧 집금강신의 몸으로 나투어 설법한다.

무진의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노니시며,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을 공양하여야 하니,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려움과 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까닭에,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일컬어 일체의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성자라고 부르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하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 억 금의 값어치가 되는 온갖 보주와 영락(瓔珞)을 끌러 바치면서 사퇴었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진보영락의 법시(法施)를 받으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니, 무진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퇴었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이제 이 무진의보살과 사부(四部)대중과 천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 등인비인(人非人)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하셨다.

즉시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천 · 용 · 인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고 두 몫으로 나누시니, 한 몫은 석가모니부처님께 바치고 한 몫은 다보불탑(多寶佛塔)에 바쳤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자재한 신력(神力)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노닌다.”

그때 무진의보살이 계송으로 물었다.

묘한 상(相) 구족한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불자(佛子)를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십니까?

묘한 상 구족한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대답하셨으니,
너는 이제 잘들어라 관음행이
곳곳마다 알맞게 응해 주심을

넓고 깊은 서원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겁 지내오면서
천만 억 부처님을 모시는 동안
청청하온 큰 서원 세워왔더라.

내 이제 너를 위해 설해주리니
명호(名號) 듣거나 친견하거나
마음으로 섬기고서 지성다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벗어나리.

만약에 어떤 이가 해침을 받아
불구덩에 떠밀려서 떨어진대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불구덩이가 변하여서 연못되리.

어찌다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용과 고기 귀신의 난(難) 만나도
관세음의 위신력 염(念)한다면
험한 물결 속에서도 무사하리.

높고 높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서 떨어진대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물게 되리.

어찌다 악인(惡人)에게 쫓겨서
금강산 험한 골짜에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으리.

원수들과 도적들이 둘러싸고서
저마다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원적(怨賊)들 모두 자비심내리.

나라 법에 걸려서 고통 받거나
형벌 받아 바야흐로 죽게 되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흉기마다 산산조각 부서지리.

큰 칼 쓰고 깊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고랑차고 묶였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어김없이 시원스레 풀려나리.

누군가 이 육신을 해코지 하려
주술이나 갖가지 독약을 써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그 해독이 본인에게 돌아가리.

어찌다 악한 나찰 만난다거나
독룡(毒龍)과 악귀가 둘러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언제나 그들이 해치지 못하리.

사나울사 맹수들에 에워싸여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무서워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먼 곳으로 황망하게 달아나리.

살모사와 독사들과 쏘는 독충
불꽃같은 독기내어 뿜을지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소리 따라 스스로가 흠어지리.

먹구름에 천둥일고 번개 치며
우박 쏟아지고 큰비 퍼부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바로 즉시 구름건혀 활짝 개리.

중생들이 가지가지 곤액당하여
한량없는 고통들이 펄박하여도
관세음의 신묘하신 지혜의 힘
이 세상의 온갖 고통 건져주리.

가지가지 신통력을 구족하시며
참 지혜 온갖 방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넓고 넓은 국토마다
거룩하신 법신을 두루 나투네.

가지가지 나쁜 곳 여러 중생들
지옥아귀 축생들에 이르기까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함께 없애주노라.

(무진익은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송을
 읊었다.)

진실하고 청정하게 보살피시고
넓고 넓은 큰 지혜로 살피시며
자비하신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저희가 어느 때나 우러릅니다.

티 없이 거룩하온 청정한 광명
지혜의 해가 어둠 부숴주시고
능히 모든 재앙을 흠어버리며
모든세간 남김없이 밝혀주시네.

자비한 몸의 행(行) 우레 같고
자애로운 거룩한 뜻은 큰 구름,
감로(甘露) 법우(法雨) 뿌려서
활활타는 번뇌 불 꺼버리시네.

송사하여 관청마당 이를 때나
두려울사 목숨 건 전쟁터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念)하면
모든 원수 모든 원망 사라지리.

생각지 못할 묘음(妙音)관세음
하늘땅 범음해조음(梵音海潮音)
어떤 세간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렇기에 항상 염(念)하옵니다.

염할지라 염할지라 의심말지라
거룩하신 그 성인 관세음보살
괴로움과 번뇌와 죽을 액난에
중생들 의지하고 믿을 바로세.

일체 모든 원만공덕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 살피니
지니신 북 바다같이 그지없어
내 마땅히 지성 다해 경배하리.

그때 지지보살(持地菩薩)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품의 자재한 업과 보문(普門)으로 나투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은 줄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회중의 팔만사천 중생 모두가 무등등(無等等)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느니라.